



창세기 1장(7)

낮과 밤의 창조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창 1:4, 5)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이때 가시광선에 의해 형성되는 두 상대적인 현상을 언급하고 계신다. 바로 낮과 밤이다. 빛의 영역 가운데 가시광선이 존재하는 한, 빛이 비추는 면과 그림자가 지는 어두운 면은 언제나 함께 존재한다. 그런 면에서 이 상대적인 현상이 동시에 언급된다는 점은 당연한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현상의 결과를 각각 낮과 밤이라고 칭하셨다.

빛이 없어도 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빛의 창조 후 낮과 밤을 나누는 장면은, 이 가시

광선 영역 하에서만 볼 수 있는, 나중에 창조될 사람을 염두에 두셨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인간이 살게 될 환경을 염두에 두시는 모습은 단지 여기뿐 아니라 창세기 1장 전체 창조과정 가운데 흐른다. 역으로 말하자면 인간 창조 이전의 모든 창조과정은 여섯째 날 창조될 자신의 형상 인간이 살 수 있는 영역의 한계를 정하시는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공간-물질의 창조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시는 창조주시며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후의 등장하는 각각의 창조과정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공간 속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준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영역의 한계를 제한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창세기 1장에 언급된 지구의 물과 빛, 대기, 바다, 식물, 해, 달, 별, 물고기, 새, 육지동물 등은 하나 하나가 서로간의 조화를 이루며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멋진 환경을 제공하지만, 반면에 이런 완벽한 조건을 벗어나선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다.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심어놓으신 완벽한 조건을 보면서 살고 있지만, 이 조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이 피조물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완벽한 피조물을 초월하신 창조주 때문에 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갖도록 창조하시고,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을 만드시고, 그 후에 인간이 그 파장의 범위 안에서만 볼 수 있도록 디자인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에 산다.

만약에 창조자를 빼고 이 완전한 피조물만을 바라본다면 그 피조물 자체가 신의 자리에 앉게 되며, 참으로 믿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가 자연적으로 되었다고 말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시간의 초월자인 창조자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은 필수적이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이다. 진화론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간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명백한 “설계자”와 “시간”의 대립이 있다. 시간을 초월한 창조자가 있느냐 아니면 시간에 따라 흘러온 자연이 있느냐이다. 성경은 그 시간도 피조물이며, 이 모든 것이 시간을 초월하신 전능한 분의 창조 결과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분은 창조과정 가운데 자신이 시간을 초월한 분이며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이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고 말하는 진화론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과정이다. 빛, 태양, 공기, 중력, 식물, 동물... 이들 하나하나가 완벽할 뿐 아니라 서로간의 완벽한 조화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수많은 피조물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서로 간에 어떤 조화를 이룰 것인지,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를 종합적으로 염두에 두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

게 실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춘 분이다. 이런 일들을 행하신 그분의 창조 과정
정을 드러낸 책이 바로 창세기 1장이다.

가끔씩 첫째 날 언급되는 빛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하나님
께서 예수님을 창조(?)하시는 모습이라고...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피조물
이라고 언급된 곳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창조자시라고
말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1:3)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
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골 1:15-17)

이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이 어떤 분이라
는 것을 드러내실 때도 아주 분명하다.

“아버지여 창세 전(before the world began)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 17:5)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나를 사랑하시므로”(요
17:24)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계셨던 분이다.

이런 생각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요 8:12)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
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며,
타락 이후에 어둠을 악용하는 사탄의 상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마태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서 “너
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고 하셨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볼지라도 우리가 첫
째 날 창조되었다고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낮과 밤을 벗어날 수 없다. 낮 아니면 밤이다. 이 낮과 밤 모
두는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먼저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아마도 이 둘 사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스라
엘의 출애굽 하는 과정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
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출 13:21). 이 장면을 보며 낮과 밤을 초월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그러하지 않는가?

그 낮과 밤을 그 창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감격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 속
에서 아래와 같은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시
74:16)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처음부터

지동설을 말하는 성경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창 1:5)

“태양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루를 계산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이나 천문학 분야를 다룰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다. 질문인 즉, 지구는 첫째 날 창조되었고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되었다면 첫째부터 셋째 날까지 “날(하루)”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질문을 하며 창조주간의 하루가 오늘날의 하루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필자는 어김없이 다음과 같이 되물어본다.

“하루는 어떻게 되어 하루가 되나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이죠”

참으로 천동설적인 대답이 아닌가? 이 시대에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며 하루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매일매일 움직이는 태양을 보기 때문인지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배웠던 지동설 교육이 하나도 소용이 없나 보다. 하루는 태양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자전 때문에 발생한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지구만 가지고 하루라는 것을 사용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창조하셨다. 이때 시간



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의 단위'도 창조하셨다. 첫 번째 시간의 단위가 바로 '하루(day)'다. 그리고 이 하루는 태양 없이 지구만 창조되었을 때 만들어졌다. 즉 처음부터 지구는 자전하도록 창조되었으며 지구만 가지고 하루라는 주기를 사용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주기를 만들었는데 바로 '연한(year)'이다. 그리고 이 연한은 넷째 날 태양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등장한다(창 1:14). 모든 물질은 질량이 무거운 것을 중심으로 돌게 되어있다. 태양도 행성의 질량의 비만큼 공전하는데 태양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공전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만약 질량이 같은 두 별들이 서로 공전 관계를 갖는다면 각각 별은 서로 공전하며 공전의 중심은 두 별 사이 중앙에 존재할 것이다.

즉 지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세 번 자전하고 네 번째 둘 때 훨씬 무거운 태양이 창조되므로 자전과 함께 공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때 성경에서는 정확히 '연한(year)'을 언급했다. 완벽한 순서가 아닌가!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어떤 누구도 지구가 하루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지 못했다. 또한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돈다고 생각해보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도 태양계를 벗어나서 지구를 포함한 행성이 공전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지 못했으며 겉보기에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은 시간의 주기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음을 창조 때부터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창세기 1장의 기록은 시간, 그 시간의 단위, 지구, 태양, 중력 등의 모든 것을 한 번에 고려할 수 있는 창조자 외에는 감히 나올 수 없다. 마치 이 태양계와 우주 밖에서 지구와 태양과 행성 그리고 별들을 보면서 디자인하고 계신 것 같지 않은가!

“아침을 명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신 이 질문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이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아침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혼자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다른 한 사람은 아침을 창조하신 분을 만난 사람이다. 위의 질문은 자신이 아침의 창조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 분께서 아침이 창조되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에게는 시작이 까마득히 막연하지 않다. 오히려 아주 분명하다. 아침도 초월하신 전능자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전능자를 잃어버린,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연주의 곧 진화론으로는 아침을 포함해서 모든 시작이 참으로 까마득해질 뿐이다. 

이재만(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창조과학탐사

지난 한 달도 창조과학탐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독교 미래연구소(8/19-25, 소장 소재찬), 알바인 온누리교회(9/2-4, 담당 목사 권혁빈), 주님의 영광교회(9/5-7, 담임목사 신승훈)등 한어권과 LA온누리교회(8/31-9/2, 담당목사 이정엽) EM의 창조과학탐사가 있었습니다.

위의 창조과학탐사 중에 기독교 미래연구소는 목사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일주일 간의 창조탐사를 통해 각 목사님들께서는 창조과학이 이 진화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는 것에 공감하셨습니다. 또한 창조탐사가 이 역할을 참으로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 스케줄을 잡기도 했습니다.

매년 참석하는 알바인, LA 온누리교회는 정기적으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각각 한어 성인과 EM팀이 참석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매년 12주의 창조과학세미나가 열립니다. 그 연장선으로 이번에는 빙하시대 창조탐사를 가졌습니다.

샌디에고 한빛교회 동성애 세미나



지난 7월 16일 이재만 선교사는 샌디에고 한빛교회에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허락하셨는가?”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성인뿐 아니라, EM Youth, 유년부

까지, 같은 시간에 전 교인이 참석한 유익한 세미나였습니다. EM Youth는 현 Southern California Bible Seminary에서 창조과학 강의를 하고 있는 Bill Hoesch, 유년부에게는 현 Life and Light Foundation에서 사역하고 있는 Alan Smith가 담당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각 주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동성애에 대한 세미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미나는 과



학적 증거, 동성애의 결과, 역사적 검토, 성경적 결론, 대처방안 뿐 아니라 그 근본적 뿌리까지 자세하게 진행됩니다. 각 교회에서 이 주제로 초청해주시기를 추천합니다.

토론토 코스타 강연

지난 8월 20-23일 동안 최우성 박사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KOSTA에서 강의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코스타는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연합 수련회입니다. 이번

에는 “어그러진 세상, 자유케 하는 복음”이란 주제였는데 창조과학을 통한 생생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어그러진 공립학교 교육때문에 성경에 대한 의심이 과학 교육을 통해 가장 많이 들어 오고 있기 때

얼바인 온누리교회



한국 기독교 미래연구소

문에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키고 전하는 데 창조과학만큼 유용한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제 5차 ITCM 지원자 모집 안내

청년들을 위한 창조사역 집중 훈련 프로그램인 제 5차 ITCM 참가자 모집이 10월 14일(월요일)에 마감 됩니다. 아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 페이지의 “훈련프로그램”을 클릭 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최우성 박사(mailforwschoi@gmail.com)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 4차 신학생 창조과학탐사 모집 안내

신학생만을 위한 창조과학탐사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 일시 : 2013년 10월 28-31일(월-목 4일간)
- 출발 : LA(정확한 장소는 추후 공고)
- 경유지 : 그랜드캐년, 글렌캐년 댐,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

LA 온누리교회 EM





주님의 영광교회



- 인도 : 이재만(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 참가비 : 1인당 \$150(창조과학선교회가 \$320보조)
- M. Div 졸업 하신 분들에게 우선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213-381-1390 혹은 hisark@gmail.com으로 연락 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주위에 추천하고 싶은 신학생들에게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ICC 학회 참석 보고

제 1기 ITCM을 수료한 조희천 형제가 ICC(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eationism) 학회 참석 후기를 보내 왔습니다.

ICC는 1986년 피츠버그에서 Creation Science Fellowship의 후원으로 시작된 국제 창조과학 학회다. 지질학, 생물학, 천문학 뿐만 아니라 공학, 역사 등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조과학자들이 모여 성경적 창조사실(젊은지구 연대)을 세우기 위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논문으로 발간합니다.

발표하는 모든 사람들과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젊은지구 연대를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 부분에 논쟁들이 있지만 언제나 6000년의 지구 연대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과 노력을 기뻐하실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었고 젊은 청년들이 별로 없었던 점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진화론을 무너뜨릴 다음 세대 사역자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진화 중인 핀치?

가장 권위 있는 과학지로 알려 진 Nature 2009년 11월 16일 온라인판에 “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드러내 주고 있는 다윈의 핀치”라는 뉴스가 났었다. 이 기사의 소재목은 “갈라파고스에서 신종 핀치가 계속 출현했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2006년에는 가뭄으로 핀치 새의 부리가 짧아진 것이 진화의 증거라는 뉴스도 있었다. 과연 이것들이 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프린스턴 대학교의 부부 교수인 피터와 로즈마리 그랜트(Peter and Rosemary Grant)는 진화생물학자들인데 거의 40년 동안 갈라파고스 제도의 작은 섬인 다프네(Daphne Major)에서 핀치새들을 관찰하고 있다. 이 조그마한 섬은 “종의 기원”을 집필했던 다윈(Charles Darwin)이 핀치새를 관찰하고 변이와 자연선택에 대한 주요 소재를 수집했던 바로 그 섬이기도 하다. 그랜트 부부도 이 섬에서 그 새들을 관찰한 결과들을 여러 차례 발표 하였다.

1981년 그랜트 부부는 수컷 핀치새 한 마리를 발견했다. 다프네 섬에 살고 있는 중간 크기의 부리를 가진 핀치(*G. fortis*)처럼 보였지만 다른 핀치에 비해 17%쯤 더 무거웠다. 유전자 분석을 해 보니 이웃 섬인 산타크루즈에서 날아 온 것으로 보였다. 그랜트 부부는 이 새에 번호를 달아 놓고 7 세대 28년 동안 관찰을 하였다고 한다.

이 수컷 핀치는 다프네 섬의 핀치와 교배하여 새끼들을 낳았는데 그 자손들 중에 많은 새들은 기존에 다프네 섬에 살고 있었던 다른 핀치들과 부리 모양과 노래 소리가 유별나게 달랐다. 4대 후에 이 섬에 극심한 가뭄이 와서 이 새들이 다 죽고 암수 한 마리씩 두 마리만 남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교배해서 태어 난 새끼들은 더 이상 같은 섬에 살고 있던 다른 핀치들과는 교배를 하지 않는 독립 된 그룹이 되었다

고 보고하였다(PNAS, 106(48), 20141-20148, 2009). 과학자들은 생식적으로 격리된 그룹이 생길 때 그 집단을 새로운 종(species)이라고 부른다.

그랜트 부부는 이 전에도 잘 알려진 과학지 사이언스(Science 313, 224 - 226, 2006)에 핀치새를 관찰한 논문을 기고하였다. 이 논문은 Nature지에서 “진화의 순간이 포착되었다”는 제목으로 기사화 되었다(2006년 7월 13일 온라인판).

다프네 섬에는 부리가 중간인 핀치새(G. fortis)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부리가 조금 더 큰 것들은 가시가 있는 질려자(학명, Tribulus cistoides) 씨를 까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1982년, 이 섬에 부리가 훨씬 더 큰 다른 종의 핀치새(G. magnirostris)가 날아와 커다란 집단을 형성했다. 이 부리가 큰 핀치들은 중간 부리 핀치들보다 질려자 씨를 훨씬 더 쉽게 까 먹는다.

한 동안 이 두 집단은 평화롭게 살았는데 2003년과 2004년에 심한 가뭄이 들었다. 먹이가 급격하게 줄어들자 두 집단의 새 숫자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 때 중간 부리 핀치(G. fortis)들 중에서는 부리가 더 작은 핀치들이 더 많이 살아 남았다. 그 이유는, G. fortis들 중에 부리가 큰 핀치들은, 질려자 씨를 까 먹을 때는 부리가 더 큰 G. magnirostris와 경쟁에서 밀리고, 작은 씨들을 먹을 때는 부리가 더 작은 동종 핀치들에게 밀렸기 때문이다. 결국 2004년과 2005년에는 핀치새들의 부리가 더 작아지는 쪽으로 변화 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진화론자들은 비슷한 종(species)이 한 가지의 자원을 놓고 경쟁하다가 다른 특징이 강조되어 다른 종으로 분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형질 대체(character displacement)’라고 부른다. 그들은 그랜트 부부가 관찰한 것이 바로 그 진화의 현상이므로 당장 교과서에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지금 생물 교과서에는 가뭄같은 환경 변화로 핀치의 부리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는 그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것을 진화의 증거로 가르치고 있다.

그랜트 부부가 관찰한 것들이 진화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새로운 핀치 종(species)이 생긴 것은 유전정보가 늘어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소진화(micro-evolution)가 아니라 변이(variation)이다. 만약 이 드라마틱한 보고서가 사실이었다면, 즉 불과 4 세대만에 생식적으로 격리된 그룹이 형성 되었다면, 이 사실은 종 분화에 수백만 년이 필요할 것이라는 진화론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4350여년 전의 노아 홍수에 이은 빙하시대 이후에 한 종류(kind)에서 생식적으로 격리된 여러 종(specie)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생겨 났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창조과학자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 만약 가뭄과 먹이 변화로 핀치새의 부리가 짧아진 변화가 사실이었다면, 이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부리가 짧은 쪽의 변이 품종이 많아진 자연선택일 뿐 진화와는 상관이 없다. 진화는 유전정보가 늘어나야 되는 과정인데 자연선택으로 핀치의 유전 정보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를 증언하는 익룡연구

공룡과 뒤섞여 발견되는 날아다니는 파충류 익룡(pterosaurs) 화석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익룡의 이해가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부 구조에 대해 더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고 보니 익룡은 이전에 오랫동안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모습이 되어 가고 있다.

영국의 한 신문사(UK's Observer)의 최근 내용 중에 마크 위튼(Mark Witton)이라는 작가는, '많은 사람들이 익룡을 "진화가 덜 된 날개를 단 괴물"과 같은 이미지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잘못된 이해가 아마도 "익룡이 아직 진화가 덜 된 조잡한 비행 생물체"라고 표현했던 "미숙한 과학적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생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전문가들은 익룡을 생체역학(biomechanics)을 통해 재구성하면서 익룡들의 놀라운 기체 역학적(aerodynamics) 정밀성을 발견하고 있다. 화석 증거로 보면 익룡은 진화가 덜 된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다.

그렇다면, "진화가 덜 된 날개를 단 괴물"이라는 익룡에 대한 이미지는 단순한 진화론적인 추측이었을까? 익룡 화석들이 여러 다른 새들의 지층 아래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고 진화론자들은 익룡을, 초기 진화물이라 너무 크고 엉성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익룡들은 수백만 년의 오랜 시간 동안 기체역학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는 진화의 과정을 겪어 결국 지금 훌륭하게 날아다니는 새나 박쥐와 같은 우월한 조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지금 익룡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 중이고, 이러한 연구들은 익룡이 "진화가 덜 된"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들을 드러내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 있는 익룡 발자국 화석은 익룡이 착륙하고 이륙하는데 매우 능숙하고 숙련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읊저버 신문사의 작가 윗튼(Witton)은, “과학자들이 익룡 고생물학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들은 익룡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진화의 낙오자가 아니라 1억6000만 년이라는 진화연대를 쟁취할 수 있었을 만큼 진화적 적응력이 뛰어난 강한 동물이었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런 정말 모순적인 이야기 아닌가! 1억6000만 년 동안 느리고 점진적인 변화로 그렇게 “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익룡을 만들었다면 그 과정에서 만들어 진 “진화적 낙오자”들이 무수히 많이 만들어졌어야 한다. 그 진화 실험실에서 만든 낙오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예를 들면, 박쥐의 날개는 5개의 손가락 같은 뼈들이 마치 부채처럼 접혀있는 모양을 한 반면에, 익룡의 날개는 하나의 긴 뼈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진화가 만들어냈어야만 하는 두 개나 세 개의 뼈로 된 날개를 가진 새나 절반 크기의 날개를 가진 새는 어디로 갔는가? 한 세기 동안 그렇게 열심히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화적 낙오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진화론의 시간 흐름과 가장 명백한 익룡 화석 자료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창세기의 역사는 이것을 매우 쉽게 설명한다. 첫째, 익룡의 구조는 처음부터 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둘째로, 창세기 홍수 심판 때 이 익룡이 매몰 되었다. 따라서 익룡 화석이 종종 공룡, 물고기, 도마뱀, 작은 포유류 그리고 새들과 같은 층에서 발견 되기도 한다. 그래서 진화적 중간단계인 “낙오자”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하게 형성된 우아한 익룡의 모습만이 화석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Brian Thomas, M.S./ 번역 : 조희천
출처 : <http://www.icr.org/article/7687>



관용,
 그들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애틀 형제교회 창조과학 탐사

6/3 - 6, 2013

우리 자녀들에게 이 창조과학 탐사에 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김정희(시애틀 형제교회)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여행이었는데 벽찬 감동과 사명감을 얻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김기중(시애틀 형제교회)

성경을 더욱더 읽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윤혜영(시애틀 형제교회)

노아의 홍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에 대해 확증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김미송(시애틀 형제교회)

저희는 결혼 25주년 기념일로 창조과학 탐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배워온 진화론이 나의 마음에서 창조론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윤영근(시애틀 형제교회)

생활 속에 깊숙하게 파고 들었던 진화론적 사고 방식을 창조론적 사고로 확실히 바꿔 주었다. -장왕수(시애틀 형제교회)

어설뜨게 알고 있었던 진화론 패러다임을 갱신했습니다. -신선영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이 명확하게 풀리는 여행이었습니다. -이호영 (상암동교회)

참 진리에는 생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김범대(시애틀 형제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발로 밟을 수 있는 감격이 큼니다. -조정아(서빙고 온누리교회)

입으로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고 있었나 봅니다. 저토록 장엄한 모습에 숨이 멎을 것 같은 압박감에 하나님 너무 멋있습니다. -강성재(시애틀 형제교회)

그 동안 저는 2번의 캐년 여행이 있었지만 이번 여행이 저에겐 첫 경험과 같은 여행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섬세함과 멋진 오케스트라 연주를 지휘하는 지휘자 같아요. -한은경(시애틀 형제교회)

창조 역사가 우리의 진짜 역사이고 성경의 진실을 알게 되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니다. -장성윤(시애틀 형제교회)

아직 믿지 않으시는 어머니와 함께 온 창조과학 탐사여행, 어머니께 복음이 들어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발 했었는데 정작 제게 더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영란(시애틀 형제교회)

모태 신앙으로 믿음을 시작한 내게 늘 진화론과 창조론의 중간에서 허덕이던 내 믿음 생활에 더욱 더 굳센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양성우(시애틀 형제교회)

창조와 과학을 따로따로 생각 했어요. ... 하나님이 창조주 이심을 말로, 머리로만 알던 것이 이제는 현실로 느끼게 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양원정(시애틀 형제교회)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허황되고 말이 안 되는 것인지를 눈으로, 귀로 확인했습니다. ...,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 이 은혜가 저희 자녀들과 후세들에게 흘러 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기도하고 후원하겠습니다. -이주원(시애틀 형제교회)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줄 확실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 가는 귀한 여행이었습니다. -김윤희(한밭 제일교회)

창조과학 탐사 여행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사랑, 은혜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가족 이웃에게 꼭 전하겠습니다. -김남영(할렐루야교회)

우리의 자녀들을 참석하도록 적극 교회에 권하고 싶습니다. -윤순복(시애틀 형제교회)

창조과학 여행은 답답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 여행은 감탄에 감탄이고 하나님의 작품 속으로 푹 빠진 것 같습니다. -김춘분(시애틀 형제교회)

이 여행은 선택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 함을 주저히 않습니다. -한정수(시애틀 형제교회)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이 여행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그곳에 그랜드 캐년이 있고 좋겠구나 했는데, 역시 처음이 좋았습니다. -서선옥(시애틀 형제교회)

● 편집되지 않은 간증은 Home page(www.hisark.com)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

10/3 남가주주님의교회(이재만)
 10/4-10 창조과학탐사 (두란노칼리지), 이재만
 10/6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10/13 주님의영광교회(이재만), CA
 10/14-17 창조과학탐사 (남가주주님의교회), 이재만
 10/18-26 창조과학탐사 (서울 드림교회), 이재만
 10/20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10/26 ANC 집중세미나 (이재만, 최우성), CA
 10/27 주님의영광교회(이재만), CA
 10/28-31 창조과학탐사 (신학생 창조과학 탐사), 이재만

11/2 ANC 집중세미나 (이재만, 최우성), CA
 11/3-24 한국방문(이재만), 한국
 11/5 햇빛트리니티 CEO스쿨(이재만), 한국
 11/9 JAMA Orange County Conference, 최우성
 11/19-21 창조과학탐사 (LA아름다운교회), 최우성
 11/25-29 대만 은혜 국제신학교(이재만), 대만

12/11 맨하탄 온누리교회(이재만), NY
 12/13-15 뉴저지 온누리교회(이재만), NJ
 12/23-25 창조과학탐사 (샌디에고 한빛교회), 이재만
 12/26-28 창조과학탐사 (나성 순복음교회), 이재만, 최우성

2014년

1/5-8 안산동산교회(이재만), 한국
 2/7-9 네이퍼빌 온누리교회(이재만), IL
 2/20-23 Lynchburg 신학생(이재만), VA
 2/24-27 창조과학탐사 (뉴저지 온누리교회), 이재만
 4/20 North Bay 장로교회(이재만), CA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213-381-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